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 (요2:1~11)

• 찬송: 449장, 545장

가나의 혼인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수치로 끝날 상황이었으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1. 인생의 결핍을 예수님께 아립시다(3절).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영적인 방법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며,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중심축이신 예수님을 개입시키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생의 빈 항아리가 느껴질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5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이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 아귀까지 채울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7-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은 ‘항아리의 아귀(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에도 빈틈없이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살리시고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창12:1-4),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이 가나의 잔칫집처럼, 결핍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 날 가정 예배

◆ 예배 일시: 2026년 2월 17일(화)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제일교회**

담임목사 전종남

설날가정예배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가정” (삼상7:3~12)

•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28장, 384장

• 대표기도: 가족 중

할렐루야.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러 계획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니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3절).

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주의 종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자,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23:4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7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방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올 해 우리 가정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봅시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 했습니다(9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응답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10절).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3.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가정이 됩시다(12절)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12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한 다음에, 사무엘은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돌아보면, 에벤에셀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벤에셀!**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